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1991. 11.

李 三 星(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目 次

1. 問題의 提起	3
2. 부시 美大統領의 戰術核宣言	4
가. 宣言 要旨	4
나. 宣言의 背景과 意圖	5
3.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의 對應宣言	11
가. 宣言 要旨	11
나. 宣言의 背景과 意圖	12
4. 軍縮 實現展望	14
가. 促進要因	14
나. 抑制要因	16
다. 展 望	20
5. 東北亞 및 韓半島 軍事秩序에 미치는 影響	24
가. 東北亞 核軍縮 展望	24
나. 韓半島 安保環境에 미치는 影響	26
6. 韓國 核政策과 韓半島 非核化 實現展望	32
가. 韓半島 非核 5 原則宣言과 韓國의 核政策	32
나. 北韓의 非核地帶化 要求의 內容과 性格	34
다. 南北韓의 韓半島 核政策 比較	35

라. 北韓 核査察問題와 解決展望 37

〈附錄〉

1. 부시 美大統領의 戰術核宣言 內容 47
2.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의 對應宣言의 內容 53
3. 美·蘇 軍縮提案 比較表 57

1. 問題의 提起

- 1991년 9월 28일 부시 美國大統領은 空軍用을 제외한 모든 戰術核을 폐기하고 戰略核의 現代化계획도 제한하는 政策을 발표하였음.
- 美國은 同宣言에서 蘇聯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였는 바,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은 1991년 10월 5일 空軍用도 포함한 戰術核 전체를 폐기할 것을 제안하는 보다 획기적인 軍縮宣言을 발표하였음.
- 美·蘇의 획기적 핵전력감축선언은 東北亞의 안보상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美國의 지상 및 해상 배치 戰術核의 전면폐기는 유럽과 동시에 한반도에 배치된 美軍 核武器의 全面撤收를 초래하는 등,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韓國政府는 美國 戰術核 폐기 및 한반도 핵철폐 방침의 후속조치로 1991년 11월 8일 韓半島 非核5原則을 발표하였으며, 이로써 한반도는 비핵화실현의 계기를 맞게 되었음.
- 北韓은 한반도 非核地帶化論에 근거하여 國際核査察 요구에 불응하고 있음. 이에 美國 등 주요 關係國들은 北韓에 대한 强압적 제재까지도 고려함에 따라 한반도 핵

문제는 심각한 국제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이번 부시 美大統領의 戰術核宣言은 탈냉전의 확산을 겨냥한 정책으로서 한반도에 비핵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긍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北韓의 핵사찰수용 거부와 이에 대한 미국의 강경대응으로 지역적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美·蘇의 전술핵정책 변화가 동북아 및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번 부시선언을 계기로 北韓의 國際核査察 수용을 가능하다면 평화적으로 조기에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긴급해지고 있음.

2. 부시 美大統領의 戰術核宣言

가. 宣言 要旨

- 부시의 核減縮宣言의 중심내용은 美國의 지상 및 해상발사 전술핵 전면폐기이며, 이에 따라 유럽과 韓半島에 배치된 美國의 지상전술핵들이 제거될 것임. 그러나 美國은 空軍用 戰術核은 폐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美國은 전략핵무기와 관련, 전략공군의 24시간 비상대기 태세를 해제하고 그간 美國이 개발해온 移動式 大陸間彈

道彈(MX 미사일)의 개발 및 배치를 포기하기로 하였으며, 戰略核現代化計劃을 小型의 單彈頭體制에만 국한하기로 하였음. 또한 1991년 7월 체결된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에 의한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략핵들 중에서도 多彈頭戰略核武器體系에 대한 추가감축협상을 蘇聯에 제의하였음.

- 美國은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의 탄도미사일방어 체계건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蘇聯에 대해서도 탄도미사일방어망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건설할 것을 촉구하였음. 아울러 美國은 戰略防衛計劃(SDI)은 防禦的 武器임을 강조하고 이의 개발 및 배치를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음.
- 美國은 蘇聯에 대해 相應하는 核減縮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위기에 처해 있는 蘇聯 核武器에 대한 統制體制를 개선할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음(부시선언의 자세한 내용은 <附錄> 1. 참조).

나. 宣言의 背景과 意圖

(1) 蘇聯 核武器統制危機 克服

- 蘇聯의 군부쿠데타 失敗 이후 蘇聯邦의 統一性이 악화되고 政治적인 불안정이 장기화되면서 蘇聯의 多種다양한

핵무기들에 대한 소연방정부의 효율적인 中央統制가 의문시되고 있음.

- 특히 우크라이나, 카자흐, 벨로루시 등의 共和國들 내에 수천개의 전술핵무기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들 핵무기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가장 미미하여 地域紛爭이나 內戰의 경우 심각한 위협과 불안정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蘇聯의 국내불안과 관련하여 美國은 새로운 형태의 核威脅에 직면하게 된 것을 의미함. 美國은 이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蘇聯의 戰術核들을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제거하는 것이며, 美國은 이를 선도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여짐.

(2) 美·蘇間 戰術核 不均衡是正

- 美國側의 평가에 따르면 美國이 배치한 戰術核은 4,890기, 蘇聯의 전술핵은 8,800기로서, 蘇聯측이 단연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中央統制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따라서 美國은 전술핵의 전면폐기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서방측에 중요하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임.

(3) 第三世界 核擴散 沮止

- 美國은 戰術核의 전면폐기를 통하여 第三世界 국가들의 핵무기개발의도를 근원적으로 막으려는 것으로 판단됨.
- 美國은 蘇聯邦의 핵통제가 취약한 상태에서 蘇聯의 핵무기 또는 핵무기 제조기술 등이 제3세계국가로 용이하게 이전될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음.
- 탈냉전시대의 國際秩序에서 美國의 주도권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요인은 蘇聯의 위협보다는 오히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第3世界 擴散問題라는 평가도 제기되어 왔음.
- 核發電 등 핵의 평화적 이용의 확산과 아울러 핵무기 개발 기술의 확산으로 제3세계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통제필요성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특히 최근 이라크와 北韓의 核開發問題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여 왔음.
- 최근 주목되고 있는 北韓의 核開發問題는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대한 최대의 불안정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美國의 戰術核을 위시한 군축선언은 北韓의 핵무기개발가능성을 사전예방하겠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음.

- 國際地域紛爭에서 제 3 세계의 대미도전은 반드시 군사적 승리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정치적 승리를 겨냥하는 경우가 많음. 제 3 세계 국가가 미군의 목표물에 핵을 선제사용할 경우, 美國政府는 커다란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며, 美國人의 인명피해에 민감한 美國內 여론 때문에 실질적인 地域紛爭介入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 이와 같은 우려때문에 제 3 세계 국가들의 핵무기개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 한편 脫冷戰時代에도 美國이 蘇聯과 더불어 방대한 숫자의 전술핵을 계속 보유할 경우 제 3 세계 국가들에게만 핵보유금지를 강요할 正當性이 약화될 수 있다는 사실도 美國은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 美 軍事力 構造調整

- 美國의 戰術核 全面廢棄는 탈냉전과 美國의 재정문제 악화에 따른 전진배치군사력의 전반적인 構造改編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세계에 대한 美國의 戰術核 配置는 방대한 해외기지 와 이를 뒷받침하는 군병력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었음. 美國은 자신의 세계적인 군사적 헤게모니는 유지하되 이에 따르는 비용의 절감을 위해 고심해 왔음.

이와 관련 美國은 前進配置戰略을 재조정하여 군사력 감축과 함께 기동성 위주로 전력 구조개편을 시도하고 있음. 그 결과 유지부담은 크되 실질적인 군사전략적 가치는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 戰術核에 대한 戰略的 修正이 요구된 것으로 보임.

- 美國은 地上 및 海上에 배치된 전술핵은 철수할 것이나, 공군기 장착용 戰術核武器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이것은 美國이 전진배치된 군사력을 기동군 위주로 개편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戰術核도 기동성 위주로 재조정하는 의미도 있음. 즉, 전술핵의 全面的 廢棄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운용구조의 改編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음. 美國이 한반도에 대한 核雨傘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라고 판단됨.¹⁾

(5) 國防豫算의 效律的 配分과 戰略防衛計劃 集中

- 美國은 戰術核廢棄를 선언하는 가운데에서도 전략핵무기의 지속적인 現代化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戰略防衛計劃(SDI)의 개발 및 배치를 위한 노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것은 소련위협이 현저한 감소로 인해 그 전술·

1) 美國은 韓國에 배치된 지상전술핵을 철수하더라도 淸島에 있는 미 공군용 전술핵으로 유사시 韓國에 대한 핵우산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전략적 가치가 저하된 戰術核을 維持 및 現代化하는데
소요될 자원을 향후 세계 軍備競爭의 최첨단 분야가 될
전략방위부문으로 전환하여, 美國이 이 분야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것으로도 보여짐.

- 전술핵을 폐기함으로써 전략방위계획에 대한 物的, 人的 資源의 집중투자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이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광범한 국제적·국내정치적 지지확보가 容易해질 것임.
- 부시행정부는 또한 戰術核武器를 폐기하는 대신 스텔스 폭격기(Stealth Bombers) 등과 같은 最尖端 在來式武器들에 대한 투자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

(6) 蘇聯 戰略核 現代化 沮止

- 부시 미대통령의 선언은 전술핵 폐기 뿐 아니라 蘇聯 전략핵의 주력인 대륙간탄도탄(ICBM)의 減縮을 제안함으로써 美國 본토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약화시키려는 것임. 美·蘇가 공히 移動式 大陸間彈道彈(mobile ICBM)의 개발을 막고 고정식의 경우도 현대화계획을 한가지 형태로만 제한할 것을 요구한 것은 蘇聯 대륙간탄도탄의 對美威脅水準을 줄이려는 의도임.
- 美國이 蘇聯의 주력인 대륙간탄도탄의 현대화를 제한하

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달리 美國 자신의 강점인 海上配置 戰略核武器體系(SLBM)의 현대화노력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美國은 蘇聯의 전략핵의 現代化 沮止를 주요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

3.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의 對應宣言

가. 宣言 要旨

-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은 지상 및 해상배치 전술핵 뿐 아니라 空軍用도 포함한 모든 戰術核廢棄를 선언하였음. 항공기에 장착된 모든 戰術核을 제거한 후 이 문제에 대한 美·蘇協商 개시를 제안하였음.
- 蘇聯도 美國과 마찬가지로 전략핵장착 重爆擊機의 비상 경계태세를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美國이 가장 경계해은 移動式 大陸間彈道彈 保有를 현수준에서 凍結하기로 하였음. 美國은 자신의 강점인 潛水艦發射 戰略核에 대해서 아무런 감축의사를 밝히지 않은데 반하여, 蘇聯은 여러척의 전략핵탑재 잠수함을 이미 제거했거나 추가제거할 계획을 밝혔음. 또한 蘇聯은 자신의 戰略核彈頭數를 「戰略武器減縮協商」에서 相互認定한 上限線인 6,000개보다 더 적은 5,000개 이하로 감축할 계획임.

- 蘇聯은 핵무기들에 대한 統制와 그 安全性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전략핵무기를 單一統制 밑에 두며 전략방위망도 단일통제체제로 할 계획임.
- 蘇聯은 美國에 대해 공군용 전술핵도 전면제거하고, 戰略武器減縮協商 認准獲得 직후 美·蘇가 공격용 전략무기의 50% 추가감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것 등을 제안하였음(고르바초프 핵감축선언의 자세한 내용은 <附錄> 2. 참조).

나. 宣言의 背景과 意圖

(1) 西歐의 經濟支援 獲得위한 平和意志 闡明

- 蘇聯은 美國과의 군비경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미 핵감축의 방향이 설정된 이상 모든 전술핵무기를 철거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軍事費負擔을 줄일 수 있고, 명분상으로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蘇聯은 이번 조치를 통하여 美國과 서구에 대한 최대 위협요인을 제거해 줌으로써 현재 절실히 요구되는 서방국들의 경제지원획득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임.

(2) 軍縮主導와 對西方外交 主導權 強化

-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의 핵감축조치는 美國의 核減縮措置를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美國과의 군축협상을 주도적

으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엿보임. 여기에는 고르바초프 大統領이 蘇聯의 체제개혁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약화를 만회하고 적어도 외교분야에서 자신의 리더쉽 健在를 내외에 과시함으로써 對西方外交의 主導權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음.

(3) 蘇聯邦內 共和國들의 戰術核 掌握 防止

- 전술핵무기는 대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 벨로루시공화국에 배치되어 있어 최근의 쿠데타발생 이후 中央權力이 붕괴되고 각공화국들의 연방이탈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서방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核武器統制의 안전성과 관련한 우려가 고조되어 왔음. 따라서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은 이번 제안을 통해 美國의 減縮提案에 호응하면서 美國을 더 적극적인 핵군축으로 유도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각 공화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핵무기를 제거하고 핵에 대한 중앙 통제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4. 軍縮 實現展望

가. 促進要因

(1) 脫冷戰의 國際氣流

- 부시 美大統領의 핵감축제안과 이에 대한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의 대응선언은 모두 脫冷戰時代에 적합한 새로운 안보질서 모색의 일환으로서 그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짐.
- 냉전시대 군사전략의 축을 이루어온 핵무기에 의한 상호 억지전략은 긍정적 효과보다 그 필요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위험부담만 지속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강해지고 있음.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核戰略構想은 「최소한의 억지력」(minimum deterrence)개념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핵공격 억지에 필요한 最小限의 核戰力を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되면서 그 이상의 과도한 전략핵보유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또한 美·蘇가 戰略核의 부분적인 현대화 필요성을 여전히 느끼고 있지만, 脫冷戰의 기류와 아울러 蘇聯의 경제난과 美國의 재정난 등 이유로 현대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임.

(2) 美國主導의 軍縮宣言

- 이번 전술핵감축선언은 과거와는 달리 蘇聯이 아니라 현재 國際政治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는 美國이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美·蘇 양국간의 의견조정이 과거보다 신속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蘇聯邦내 共和國 戰術核에 대한 統制危機感 共有

- 美國 뿐 아니라 소련방정부도 소련내 여러 공화국에 산재된 전술핵무기들에 대한 統制問題로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는 등, 美·蘇가 戰術核 廢棄에 대해 당면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많음.

(4) 第三世界 核擴散 沮止必要性에 대한 共同認識

- 美·蘇 양국이 이라크와 北韓 등 제3세계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경향을 억제할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는 점도 美·蘇 양국이 자신들의 전술핵을 폐기하고 더 나아가 이라크와 北韓 등의 핵개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강화하는 요인임.

(5) 核武器擴散에 대한 美·蘇의 責任

- 非核國家나 비교적 적은 숫자의 핵무기만 갖고 있는 국가들은 美國과 蘇聯 등 과도한 핵무기체계를 축적해 온

나라들이 제기하는 일방적인 核武器 擴散防止 要求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해 온 것이 사실임. 이에 따라 美·蘇 양국은 자신들의 과도한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보유량을 축소하는 것이 核擴散禁止條約 등 「국제적 레짐」에 대한 여타 국가들의 협조를 유도하는데 필요하다는 인식을 共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나. 抑制要因

(1) 다른 核保有國들의 微温的 態度

- 美·蘇가 대폭적인 전술핵 폐기선언을 각각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英國, 프랑스, 中國 등 다른 주요 핵보유국들은 전술핵을 포함한 핵전력 現代化努力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점은 美·蘇 양국이 주도하는 거의 전면적인 전술핵 폐기와 選別的인 戰略核 減縮努力의 지속에 장애요인이 될 것임.
- 유럽에서는 독일만이 美國의 軍縮宣言을 적극 환영하였음. 독일은 유럽 주요 국가들 중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면서 동서 양진영의 핵 위협을 가장 절박하게 느껴 왔음. 독일은 이번 부시선언이 英國과 프랑스 등 유럽 핵보유국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여 유럽내 자신의 군사·정치적 열세를 개선하길 원하기 때문임.

英國은 美國의 단거리 핵미사일 폐기를 환영하였으나 「最小限의 抑止力」을 유지하기 위한 核潛水艦隊의 現代化計劃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英國은 기존의 노후한 핵무기체계는 과감히 폐기하되, 「트라이던트 개발계획」 등 신형 핵무기개발은 중단하지 않을 태세임.

뒤마 프랑스 외무장관은 부시의 군축선언을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프랑스가 核減縮協商에 동참할 정도로 핵무기를 보유한 수준이 못되고 있다면서 기존의 핵개발계획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음.

1964년 세계에서 세번째로 핵을 독자개발한 바 있는 中國은 미 본토도 사정권에 두는 大陸間彈道彈 등을 보유하고 있음. 中國 핵전력의 성능과 규모는 美·蘇에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中國은 核擴散禁止條約에 최근어야 가입의사를 밝히는 등 美·蘇의 핵정책과는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왔음. 이번 美國의 戰術核廢棄宣言에 대해서도 中國은 “美國과 蘇聯은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만큼 핵군축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였음. 이것은 美·蘇의 핵군축에 대한 환영의 표시이면서도, 美·蘇의 핵군축 필요성이 곧 中國의 핵군축 필요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의사 표시로 간주됨. 따라서 中國은 당분간 美·蘇의 軍縮趨

- 勢를 관망할 뿐 스스로 적극적인 군축의 의지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점은 日本의 軍事大國化 傾向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을 전망이다.²⁾

(2) 美·蘇 兩國의 核減縮提案의 差異

- 이번 美·蘇 양국의 군축제안은 서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도 상호간에 상당한 의견조정을 거쳐야 될 것임. 이와 같은 차이점은 美·蘇 핵군축제안 실현에 불확실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 空中發射戰術核 部門

-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은 航空機搭在 戰術核武器 제거를 제안한데 반해, 부시 美大統領은 공중발사 핵무기는 미래의 위기재발 등 緊急事態에 대비하여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체니 美국방장관과 파월 美합참의장 역시 전술핵 철수와 관계없이 유럽과 韓國에 있는 핵무기 탑재기능을 가진 항공기를 유지함으로써 美國에 의한 核

2) 1991년 9월 30일 日本의 이케다 防衛廳長官은 부시 美大統領의 핵병기삭감계획과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의 환영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日本의 방위력정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여 종래의 軍事力增強計劃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음. 그는 “지금까지 日本에 대한 핵의 위협에 대해서는 美國의 억지력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조치는 그 抑止力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日本의 방위정책과 방위력정비에는 영향을 줄 것이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밝혔음.

雨傘提供이 계속될 것임을 밝혔음.

(나) 戰略核 部門

- 蘇聯은 자국 전략핵의 핵심인 대륙간탄도탄 503기의警戒態勢解除를 선언하고 핵미사일잠수함 3척(미사일 발사 장치 48문)의 퇴역을 선언하였으나, 부시 美大統領의 선언 속에는 美國의 핵전략의 주요 골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핵미사일潛水艦의 감축에 대한 아무런 제안이 없음. 양국의 선언이 실질적으로 상대국의 상응한 대응조치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차이는 핵減縮의 실행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3) 蘇聯의 核統制 實現可能性에 疑問

- 이번 美·蘇 양국의 전술핵관련 군축제안들이 蘇聯의 전술핵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한 점에 비추어, 그 실현 여부는 蘇聯邦政府가 소연방내에 흩어진 수천기의 전술핵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양국간 相互對稱的인 減縮 가능성여부에 좌우될 것임. 그러나 핵무기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적 통제 및 減縮具現能力을 蘇聯邦이 갖고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이러한 의문은 美·蘇 양국의 향후 핵군축에 중요한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음.

다. 展 望

(1) 戰術核減縮 展望

-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몇가지 장애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美國의 一方的 核減縮宣言은 蘇聯의 積極적 反應을 수반하면서 技術核에 관한 한 상당한 감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美·蘇 양국은 다른 핵보유국들의 미온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다른 핵보유국가들과 달리 이미 과도한 숫자의 핵탄두(overkill)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美·蘇 양국이 減縮을 선도함으로써 다른 핵보유국들의 핵보유 확대 및 現代化努力을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임.
- 美·蘇 양국이 각기 제시한 군축안의 차이점은 양국간 협의를 통해, 특히 技術核 부분에 관한 한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蘇聯이 공중핵을 포함, 技術核의 全面的 廢棄를 제안함으로써, 蘇聯의 상응조치를 요구한 美國의 전제조건은 技術核에 관한 한 충족된 셈임.
- 美國은 소연방이 소연방내의 모든 핵에 대하여 單一한 統制體制를 확립하고 개별 공화국들의 핵보유를 억제

하기 위하여 서방의 經濟援助問題를 압력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美·蘇 양국은 蘇聯내 核武器體系에 대한 보다 완전한 핵통제를 확립해 나가는 가운데 核統制問題의 원천적 해결을 위해 실질적 전술핵 감축을 실천에 옮길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空中 戰術核을 유지하려는 美國의 의도에 따라 蘇聯 역시 공중핵의 일부는 러시아공화국 내에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2) 戰略核減縮 展望

- 전략핵과 관련하여 미·소간에 획기적인 감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 美·蘇 양국은 현재 15개 국가들이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충분한 核抑止力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美國은 전통적으로 海上配置 戰略核武器體系에 강점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대소우위를 포기할 의도가 없으며, 蘇聯은 주로 대륙간탄도탄에 중점을 두어 왔음. 이 점에 관해 美·蘇 양국이 서로 상응하는 타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 美·蘇 양국은 전략핵에 관해서도 부분적으로 武器體系의 확대개발을 억제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서로 부분적이거나 현대화를 계속할 의도를 갖고 있음.
- 美·蘇 양국은 다극화된 세계속에서 양국이 군사초강국의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國際政治에 대한 영향력을 견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략핵무기면에서 다른 핵보유국들보다 월등한 우위상태를 포기하지 않을 전망이다.
- 美國은 이번 선언에서 탄도미사일 공격을 재래식 탄두를 이용해 방어하는 「非核彈道미사일防禦網」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전략방위계획의 개발 및 배치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술이 뒤지는 蘇聯으로는 美國의 戰略防衛網을 침투할 수 있는 충분한 戰略武器 保有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특히 美國의 전략방위노력은 기본적으로 전략공격핵무기들의 현대화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軍備競爭을 새로운 차원에서 지속시킬 可能性도 있음. 美國의 전략방위계획의 개발과 배치가 본격화될 경우 그 분야에서 상호경쟁이 가속화될 뿐

아니라 상대방의 戰略防衛網을 파괴하고 침투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공격용 무기개발이라는 二重的 軍備競爭이 양국간에 촉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美·蘇 양국이 노후한 전략무기체계를 폐기하는 등 부분적인 감축노력은 가능하겠지만 대폭적인 戰略武器減縮協商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 있는 軍縮 促進要因들로 인하여 전략핵부문에서도 반드시 「최소억지」수준³⁾으로의 대폭적인 감축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추가감축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최소억지」에 필요한 핵무기의 양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로버트 맥나마라 전 美 국방장관은 美·蘇 양측 각각 300기 정도만 보유하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음. 한편 1991년 7월 전략무기축협상이 타결된 이후 미국 학술원(the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은 그 다음 단계의 핵군축 목표를 美·蘇 양측이 다같이 3,000기 내지 4,000기를 보유하는 수준으로 잡은 바 있음(Reuter 통신, *Korea Herald*, 7, 1991).

5. 東北亞 및 韓半島 軍事秩序에 미치는 影響

가. 東北亞 核軍縮 展望

(1) 戰術核

- 美·蘇 양국이 전술핵에 관한 한 강한 폐기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에서도 전술핵은 그 대부분이 제거될 것으로 보여짐.
- 그러나 美國이 空中核을 계속 유지하려는 意志가 변하지 않는 한 동북아의 미군 기지에 대한 美國 空中核配置는 부분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유사시 지역적 非常事態에 대비하여 한반도에 대한 核雨傘을 제공하는 근거의 하나로 남을 것임.
- 한반도에 배치되어온 것으로 알려진 전술핵들 중에서 군산의 미군기지에 있는 공중핵무기들은 일방적으로 폐기되기보다는 北韓의 核査察問題와 연계되어 그 철수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음.

(2) 戰略核

- 1991년 7월 「전략무기감축협상」 타결로 美·蘇 양국이 보유한 전략무기들 중 3분의 1 정도가 폐기됨에 따라 향후 7년에 걸쳐 북태평양에 美國이 배치한 海上發射 戰略核

들과 蘇聯이 동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지상 및 해상 발사 전략핵들의 일부가 제거될 전망이다. 또한 美·蘇가 이번 제안에서 밝힌대로 부분적으로나마 전략핵의 추가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그러나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이 지역에서도 美·蘇가 배치하고 있는 전략무기체계들은 양국이 동북아에서 각자 유리한 군사·정치적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주요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전략핵에 있어서는 대폭적인 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3) 在來式 軍兵力 減縮

- 전술핵이 철수하게 되면, 그 전술핵의 유지기반으로 기능했던 군사기지 및 부대병력의 감축이 가능해짐. 蘇聯은 그간 천명해 온 대로 極東軍兵力의 追加減縮을 실시할 것으로 보여짐. 美國 역시 韓國과 日本으로부터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추진해갈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철수계획을 최근 北韓의 核査察受容과 연계시킴에 따라 美軍의 추가철수는 당분간 유보될 것으로 보여짐.

나. 韓半島 安保環境에 미치는 影響

(1) 韓半島 周邊 美 軍事戰略에 미치는 影響

(가) 柔軟對應戰略의 根本 維持

- 해외에 대한 美國의 戰術核 前進配置는 1950년대에는 상대방의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도 핵으로 응징할 수 있다는 「大量報復戰略」에 근거했으며, 196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적의 핵공격의 방법과 수준에 상응하여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柔軟對應」(flexible response) 개념에 근거해 왔음.
- 美·蘇가 대부분의 전술핵을 폐기하는 경우 美國의 「柔軟對應」 전략개념에 상당한 변화가 왔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美國이 적의 재래식 공격에 필요하다면 핵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이나, 적의 핵공격에 대해 적절한 수준으로 단계적인 대응을 한다는 유연대응전략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포기된 것은 아님.
- 첫째, 해양국가인 美國은 기동성 있는 전함 및 잠수함에 배치된 해상발사전략핵무기들과 이들 무기의 지속적인 尖端化를 통해서 공격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증대시켜 왔음. 이들 핵무기체계는 機動性和 다양한 사정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有事時 해당지역에 급파되

어 전략적 및 전술적 용도에 다양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

- 둘째, 美國은 空軍用 戰鬪機에 탑재하는 전술핵은 폐기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시킴으로써 美國이 유사시 전술핵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임을 분명히 했음. 따라서 美國이 지상 및 해상 배치 전술핵을 폐기한 것은 柔軟對應戰略의 포기가 아니라 지상군을 상당부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주로 機動性있는 空軍用 戰術核에 의존하여 柔軟對應戰略을 구사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음.

(나) 戰略核의 重要性 增大

- 지상 및 해상배치 전술핵이 전면 폐기됨에 따라 美·蘇 공히 전략핵이 갖는 중요성이 증대할 것임. 전략핵의 중요성 증대는 두가지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첫째, 戰略核을 유사시 전술적 용도를 위하여 활용하는 전략개념, 즉 戰略核의 用度多變化 가능성이 높아졌음.
 - 둘째, 美國이 주요지역에서 동맹국들에 제공하는 核雨傘이 인근지역에 배치된 美國의 전략핵에 의존하는 정도가 강해졌다고 볼 수 있음.

(다) NCND政策에 融通性 附與

- 이번 부시 미대통령의 전술핵선언은 美國의 NCND정책에 상당한 수정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함.
 - 첫째, 美國政府가 해당지역에 대한 美國 핵무기의 배치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으로써 美國 핵무기 이동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潛在的 敵對國에 대한 심리적 위협효과를 노려온 NCND정책은 대부분 해외 미 동맹국과 그 인근에 배치된 전술핵에 관련된 정책이었다고 말할 수 있음. 전술핵이 공군용을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폐기될 경우 NCND정책의 의미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될 것임.
 - 둘째, 北韓의 核査察拒否 근거가 되어 온 남한배치 美戰術核의 철수를 선언함으로써 美國은 그간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NCND정책을 상당부분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美國은 필요에 따라서는 이미 과거에도 해당지역에 美國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 사실임. 예를 들어 1970년대 중반 사이공의 함락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美國의 防衛公約이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였을 때, 美國政府는 韓國에 강력한 핵억지력을 갖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동맹국 정

부를 안심시키고 적의 잠재적 공격가능성을 억제하려는 태도를 취한 바 있음.

(라) 在來式武器 尖端化 要求 增大可能性

- 美·蘇 양국이 지상 및 해상배치 전술핵을 대거 제거할 경우, 양국이 空軍用 戰術核은 일정하게 유지하더라도 그 간 전술핵이 담당해 오던 역할의 상당부분을 재래식 무기가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필요성은 재래식 무기의 現代化, 尖端化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여짐. 또한 전술핵 폐기를 계기로 在來式武器 尖端化計劃은 美·蘇 양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보다 많은 지지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짐.
- 재래식무기 尖端化 요구는 美·蘇 양국에서 뿐 아니라 현재까지 美國 전술핵의 측면지원을 받아온 日本, 韓國 등에서 재래식무기의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될 수 있음. 이것은 최근 韓國政府가 美國 으로부터 걸프전에서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진 패 트리어트미사일 등 첨단무기를 수입하려는 계획이 美國의 戰術核廢棄宣言에 뒤이어 나타난데서도 보여짐.
- 그러나 美國의 戰術核廢棄宣言이 韓半島와 그 周邊에서 실질적인 군축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면, 재래식무기 첨단화 요구는 제한적인 것

에 그칠 가능성도 있음.

(2) 韓國安保에 대한 影響

- 부시의 전술핵폐기선언은 韓國의 안보상황에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음. 美國은 冷戰時代에 있어서 동북아의 안보가 이 지역에 배치한 美國의 전술핵에 의한 抑止效果에 상당히 의존해 온 것으로 평가한 바 있음. 그러나 이번 부시선언에 따른 한반도로부터의 美 戰術核撤收는 蘇聯 및 北韓에 의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效果的 對應은 전술핵 없이도 가능하다는 새로운 판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실제 韓國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美國이 동북아에 배치하고 있는 공군용 핵무기와 北太平洋에 배치되어 있는 美國의 戰略核 등이 戰術的으로 活用될 소지가 있어서 美國의 핵우산에는 근본적 변화가 없을 것임.
- 부시의 전술핵폐기선언과 이에 따른 韓半島의 美軍戰術核 撤收를 향후 우리정부가 北韓과의 軍事的 信賴構築과 실질적 군축의 계기로 활용한다면 南北韓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귀중한 轉機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美國의 전술핵폐기선언과 蘇聯의 전술핵 전폐를 비롯한 대폭적인 核減縮 및 極東軍 減縮 선언으로 동북아지역의 地域紛爭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번 美國의 戰術核廢棄宣言은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두가지 점에서 유의를 요함.
 - 첫째, 이번 美國의 전술핵폐기선언은 北韓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하여 적절히 활용되어야 함.
 - 둘째, 東北亞로부터의 美國 전술핵 철수는 日本의 軍事大國化경향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 美國의 戰術核撤收는 탈냉전으로 인한 蘇聯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의 현저한 감소에 따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日本은 이 조치를 동북아에서 자신의 군사·정치적 역할의 확대를 꾀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日本政府는 부시선언으로 인해 동북아에 힘의 空白이 확대되었다는 심리상태를 擴散시켜 동북아에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확대하려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요청됨.

6. 韓國 核政策과 韓半島 非核化 實現展望

- 부시 미대통령의 전술핵관련 감축선언이 있는 직후 韓國 政府는 韓半島 非核5原則을 발표함으로써 그간 南北韓 및 주변 강대국들간 핵전략 차이로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였던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음. 그러나 韓國政府의 非核化宣言과 北韓이 그간 주장해온 한반도 非核地帶化案의 차이 등 문제점이 잔존하고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실현은 여전히 다각적인 노력을 요하고 있음.

가. 韓半島 非核 5 原則宣言과 韓國의 核政策

(1) 韓半島 非核化宣言의 內容

- 1991년 11월 8일 노태우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韓國의 핵무기 및 관련사항에 대한 정책기조를 천명하였음.
 - 韓國의 國際核査察 遵守: 韓國은 “핵무기의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이에 따른 國際原子力機構(IAEA)와 체결한 「核安全措施協定」을 준수, 한국내의 핵시설과 핵물질은 철저한 국제사찰을 받도록 하며 핵연료재처리 및 핵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것”임.

- 韓半島 非核 5 原則: 韓國은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製造, 保有, 貯藏, 配備, 使用하지 않을 것”임.
- 生化學武器 排除: 韓國은 “화학생물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할 것임.
- 北韓의 核査察 受容 促求: 韓國은 「11.8 韓半島 非核化宣言」 배경과 관련하여 “北韓의 핵개발추진이 한반도와 동북아평화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어 北韓의 핵개발 명분과 이유를 제거하는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同宣言을 발표하였으며, 따라서 “이제 北韓이 국제사찰을 피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있을 수 없다”는 근거로 北韓이 핵안전협정에 조속히 서명하고 核再處理 및 濃縮施設의 보유를 포기하도록 촉구하였음.

(2) 韓半島非核化 宣言의 意義와 性格

- 北韓의 核開發名分 除去意圖: 이번 韓國의 비핵 5원칙선언은 무엇보다도 北韓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임. 北韓은 자신이 국제핵사찰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핵무기철수와 韓國의 핵시설에 대한 同時査察을 제기해 왔음. 그러나 부시 미대통령의 전술핵폐기선언으로

주한미군이 보유했던 전술핵무기들이 남한에서 철수될 전망이다, 韓國政府 역시 國際的 核査察遵守를 통해 핵을 보유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北韓의 핵개발명분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核武器의 搬入 및 通行權 不排除: 이번 韓國의 非核5原則宣言은 韓國이 핵의 제조, 저장, 보유, 배치, 사용을 알겠다는 것으로서 핵무기의 반입이나 통행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나. 北韓의 非核地帶化 要求의 內容과 性格

- 核武器使用禁止: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한 北韓의 입장은 「非核地帶化」로 대변되어 왔으며, 이는 “특정 지역내의 관계국가들이 핵무기의 생산, 실험, 보유, 반입 등을 공동으로 포기할 것”을 의미함.
- 核雨傘反對: 北韓은 비핵지대화 요구 속에 핵무기의 「반입금지」를 명시하고 있음. 北韓의 非核地帶化 요구와 韓國의 이번 韓半島非核化宣言 사이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바로 北韓이 핵무기의 반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비해 韓國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韓半島 非核地帶化에 대한 域內 國家들의 法的 保障: 北韓은 핵무기보유국가들은 비핵지대화의 기본원칙을 존중

하여 해당 지역내 국가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다. 南北韓의 韓半島 核政策 比較

- 韓國의 非核 5原則과 北韓이 주장해 온 非核地帶化 사이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고 있음. 南北韓의 核政策은 南北韓 당사자들이 모두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으나 특히 한반도와 외국 핵무기의 관계에 대한 정책을 둘러싸고 현저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음.

(1) 核通行의 許容問題

- 北韓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군항공기의 한반도통과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데 반해 남한은 「無害通行權」 보장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들어 핵탑재 항공기나 함정의 일시적 통과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2) 核雨傘問題

- 北韓은 미군보유 공중발사 핵무기에 의한 핵우산의 사실상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南韓은 北韓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效果的인 抑止體系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미군

항공기에 의한 핵우산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는 南北韓의 핵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 아니라 美·蘇 양국의 핵減縮宣言 내용의 차이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蘇聯이 美國에 대하여 공중발사 핵무기의 상호감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비해 美國은 空中核은 계속 보유하려 하는 差異와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음.

(3) 核再處理施設 및 우라늄濃縮施設 保有問題

- 남한은 핵무기원료를 추출할 수 있는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일체 보유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였음. 핵재처리시설의 경우 國際原子力機構도 보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포기한 것은 필요시 핵무기제조로 용도전환할 수 있는 「핵옵션」, 즉 잠재적 核開發能力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음. 반면 北韓은 이미 영변에 건설중인 핵재처리시설의 폐기요구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음.

(4) 其他 核政策

- 北韓은 이외에도 미군철수, 핵기지철폐, 핵전쟁을 가상한 군사훈련, 즉 텀스피리트훈련의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음.

라. 北韓 核査察問題와 解決展望

(1) 北韓의 核査察 拒否 過程

- 1980년 原子爐를 가동시킨 바 있는 北韓은 1985년 蘇聯의 압력으로 「핵확산금지조약」에는 가입하였으나 국제원자력기구의 核安全協定에는 서명을 거부하고 있음.
- 1990년 2월 비엔나의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北韓은 자신이 국제적 핵사찰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첫째, 核保有國의 非核國家에 대한 핵위협금지, 둘째, 한반도의 핵 무기철수 및 對北韓 핵위협제거에 대한 美國의 법적 보장 등 두가지를 요구한 바 있음. 北韓은 이와 같은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왕에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도 파기하겠다고 밝혔음. 이에 대해 國際原子力機構理事會는 그와 같은 조건들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美·北韓關係의 문제이므로 관여할 수 없다면서 北韓의 요구조건을 거부한 바 있음.

(2) 北韓의 核開發 可能性의 背景

- 同盟國으로부터의 軍事支援 減少에 따른 自力防衛能力 向上: 北韓은 蘇聯·東歐圈이 격동기에 들어선 이후 蘇聯으로부터의 군사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中國으로부터도 충분한 원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전통

적인 友邦國들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운 입장에 있음. 따라서 北韓은 自力으로 안보를 지키는 데에는 핵무기보유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南韓과의 軍備競爭의 限界: 北韓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난으로 인해 南韓과의 軍備競爭에 있어서 더이상 값비싼 비용을 요하는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추진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北韓의 핵무기 개발의 도는 경제적 능력의 한계가 군사적 능력에 가하는 제약성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에서 기인할 수 있음.
- 對美·對南外交에서 協商 手段: 北韓의 핵개발은 북한의 공식 핵정책인 非核地帶化案과 논리적으로 모순될 뿐 아니라 이미 蘇聯의 요구에 따라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점, 또 南韓의 핵개발을 촉진하여 오히려 핵개발경쟁에 있어서 南韓에 뒤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군사적 측면에서는 그 效用성이 의문시됨. 따라서 北韓의 핵무기개발 모색동기는 주한미군의 병력 및 핵무기 철수, 對美對話의 수준격상 및 남북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확보 등과 같은 政治的 效果에 있는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음.

(3) 北韓 核査察受容 展望

(가) 促進要因

- 北韓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조만간에 國際核査察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韓半島 非核化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世界的인 核減縮 趨勢와 韓半島 美軍核 撤收: 美·蘇의 핵군축선언은 탈냉전의 국제적 조류속에서 전세계적 차원에서 核擴散 防止에 대한 광범한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음. 美國은 한반도에서도 자신의 핵무기를 철수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서 그간 北韓의 핵사찰거부 명분의 주요 요소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北韓이 국제정세의 변화를 거스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北韓 核査察 拒否에 대한 主要 強大國들의 強力한 壓力: 美·蘇 양국이 핵감축선언을 통해 기타 국가들의 核擴散防止를 유도하고 있으므로 北韓의 핵무기개발 및 보유의 명분은 현저하게 약화되었음. 특히 美國은 蘇聯, 日本, 中國 등 주변 강국들의 협조를 얻어 北韓의 핵개발가능성 차단을 위한 多角的인 外交的 壓力을 행사하고 있음. 美國은 외교적 압력이 효과가 없을 때에는 경제제재를 검토할 뜻을 비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미

국내 일부관리들은 軍事的 行動 가능성까지도 언급한 바 있음. 이와 같이 가중되는 압력을 무시하고 北韓이 핵개발을 끝까지 강행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北韓의 經濟難에 따른 外國의 經濟援助 必要性: 현재 北韓은 당면한 경제난과 더불어 中·蘇로부터의 支援의 절대적 감소로 가중일로에 있는 심각한 경제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日本, 美國 등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국제적인 경제협력을 유도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 北韓의 핵사찰거부는 경제난 타개를 위한 對外關係 改善에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北韓이 경제난 타개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둘 경우 핵사찰 조기수용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짐.

韓國 및 日本의 軍備擴張 促進 可能性: 북한의 핵사찰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주변 주요 국가들의 강력한 制裁措置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남한과 日本의 첨단무기 증강을 촉진시키고, 특히 일본의 경우 핵무장까지도 추진하게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것은 北韓 非核地帶化 입장과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결국 북한의 핵사찰수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나) 遲延要因

○ 北韓이 핵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 몇가지 요인때문에 의외로 國際核査察 수용을 가능한 한 장기적으로 지연시키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음.

— 美國의 對北韓 強硬策에 대한 中國의 反對: 中國은 여타 국가들과 같이 北韓의 핵사찰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北韓이 國際核査察 수용을 거부한다고 해서 美國이 이를 강압적으로 제재하려는 시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中國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美國이 北韓과의 외교적 대화를 강화하여 北韓의 핵사찰수용을 유도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같은 中國의 기본입장은 北韓으로 하여금 자신의 조건관철을 추구할 여지를 갖게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非核地帶化의 名分殘存: 北韓은 자신이 국제핵사찰수용의 前提條件으로 삼고 있는 “비핵국가에 대한 핵위협제거,”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北韓에 대한 美國의 핵위협제거”라는 요구는 여전히 국제적으로 타당한 명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美國이 韓國에 대해 유사시 核雨傘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은 명백히 非核國

家인 北韓에 대한 不當한 核危脅의 한 형태라고 보고 있음. 따라서 北韓은 어떤 경우에도 핵의 반입이나 유사시 핵의 先制使用 위협도 완전히 제거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非核地帶化」의 명분으로 國際核査察 수용을 가능한 순간까지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음.

- 北韓은 이러한 요인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非核地帶化論을 최대한 관철하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노력은 自主外交의 명분확보 등 효과를 위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北韓의 核査察受容과 韓半島 非核化 促進方案

1) 韓半島 核問題 平和的 解決의 必要性

- 韓國은 北韓의 核査察受容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기에 유도하고 이를 통해 韓半島 非核化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사실임.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 한반도에서 핵개발경쟁과 핵전쟁비화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또한 南北韓간 軍事的 緊張緩和를 통한 평화통일 실현이라는 민족적 과제해결을 위해 불가결한 軍縮의 조속한 진전이 가능할 것임.
- 이를 위해 北韓의 핵사찰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外交的 壓力方案과 동시에 南北韓 核政策의 間隔을 좁히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平和的 解決의 한 方案

- 韓國政府는 최근 南北韓間 軍事的 信賴構築, 軍縮, 그리고 非核化라는 3가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음. 그간 韓國政府는 信賴構築의 선행을 주장했으며, 北韓은 실질적 군축의 필요성을 앞세운 바 있으나, 이번 신뢰구축, 군축, 그리고 비핵화선언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韓國政府의 입장은 北韓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포용함으로써 韓半島 軍事的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앞당기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韓國政府는 차제에 이와 같은 包括的 接近의 일환으로서 南北韓 不可侵宣言과 美國의 「핵음션」문제를 융통성있게 연계함으로써 北韓의 국제핵사찰수용을 평화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됨.
- 蘇聯은 상대방이 핵을 사용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핵을 선제사용하지 않겠다는 「核先制不使用原則」(no-first-use)을 1982년에 공식천명한 바 있음. 美國도 물론 침략행위를 감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는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상대방이 美國이나 美國의 동맹국에 대하여 핵공격을 감행하는 경우에 대해 핵보복(nuclear retaliation)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래식

으로 공격해 오는 경우에도 美國은 핵을 선제사용해 격퇴하겠다는 「核先制使用可能原則」(nuclear first strike option)을 견지하고 있음. 이러한 핵선제사용가능원칙(「핵옵션」견지정책)은 北韓의 재래식 공격가능성으로부터도 남한을 보호한다는 소위 美國의 對韓國 「核雨傘」의 宣言的 基礎를 이루어온 것으로 볼 수 있음.

- 美國의 對韓國 핵우산은 그런 의미에서 宣言的 政策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南北韓이 不可侵宣言을 체결하여 北韓이 남한에 대한 침략행위를 “宣言的으로 拋棄할 경우” 美國 역시 北韓에 대한 核報復攻擊可能性을 “宣言的으로 排除”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는 代案이라고 판단됨. 이처럼 「南北韓 불가침선언」과 「美國의 핵옵션의 宣言的 拋棄」를 연계하여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北韓이 핵사찰거부의 주요 명분으로 삼고 있는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北韓의 핵사찰수용을 조기에 유도하는 동시에 南北韓간 군사적 신뢰구축과정을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3) 위 方案의 問題點과 考慮事項

- 「南北韓 不可侵宣言」과 「美國核옵션의 宣言的 排除」의 연계를 통한 한반도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두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음.

- 첫째, 美國의 핵읍선견지정책은 NCND정책과 마찬가지로 실제운용에 있어서는 妥協이 가능하더라도 宣言的으로는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일 경우 위의 방안에 대한 美國의 同意確保는 매우 어려울 것임. 그러나 美國이 원칙적으로는 NCND정책을 견지하면서도 北韓 핵사찰수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韓國政府가 한반도에서의 核不在를 선언하는 것에 대해 同意하는 예외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美國이 核先制使用問題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特殊狀況을 고려해 융통성있게 접근할 가능성은 모색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둘째, 美國은 주변국가들과의 다자간 외교협력을 통해 北韓에 대한 經濟制裁 조치와 필요할 경우 強壓的 軍事行動까지도 고려하는 등 압력을 가하고 있음. 北韓은 이러한 압력에 결국 굴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美國과 韓國政府가 미국핵읍선문제에 대하여 타협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疑問이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몇가지 遲延要因으로 인하여 北韓이 국제핵사찰수용을 최대한 유보하려 할 경우, 그 결과 있을 수 있는 美國의 對北 경제제제 또는 강압적 군사행

동이 韓半島의 통일환경에 미칠 逆機能을 고려하여, 韓國政府는 美國과 한반도 核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韓半島의 特殊狀況에 대한 融通성있는 접근의 한 代案으로서 위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附錄〉 1. 부시 美大統領의 戰術核宣言 內容

가. 戰術核關聯政策

(1) 地上發射 戰術核의 全面廢棄

- 美國은 전세계에 걸쳐 보유하고 있는 지상발사 短距離核武器를 전면 제거할 것임을 밝혔음.
- 유럽과 韓國에 배치되어 있는 핵폭탄과 短距離核미사일들이 제거될 것임.
- 미국내에 존재하는 같은 종류의 戰術核武器들도 해체되거나 파괴될 것임.

(2) 海上發射 戰術核의 全面廢棄

- 美國은 전함과 攻擊用 潛水艦에 설치된 모든 전술핵무기와 海軍航空機에 적재된 핵무기를 철수시킬 것임.
- 이는 미군함정과 잠수함에 적재된 모든 토마호크 크루즈 핵미사일과 航空母艦에 설치된 핵무기도 모두 철거되는 것을 의미함.
- 이들 海上配置 전술핵의 대부분은 파괴하되, 일부는 안전한 격납시설에 저장할 예정임.

(3) 空軍戰術核 維持

- 부시 미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安保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공군 전술핵은 유지할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럽에서의 효과적인 空中輸送 核能力은 계속 保有할 것”임을 밝혔다.

나. 其他 戰略核關聯政策

(1) 美 戰略核武器 非常待機態勢 解除

- 부시 미대통령은 긴장완화를 가속화기 위하여 주요 전략 핵무기들의 非常待機態勢를 해제한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 美國은 모든 戰略核爆擊機들에 대한 비상대기태세를 해제하고, 이 무기들을 격납고 近域에 재배치함.
 - 최근 조인된 전략핵감축협상에 따라 減縮기로 한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의 비상대기태세도 해제함. 또한 美國은 전략무기감축협정이 미·소 양국에 의하여 비준되면, 이 協定이 규정하고 있는 7년에 걸친 段階的 撤去計劃보다 앞당겨 이들 전략핵무기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2) 移動式大陸間彈道미사일 開發中斷

- 부시 미대통령은 그간 美國이 개발해온 레일을 이용한 이동식대륙간탄도미사일인 피스키퍼 대륙간탄도미사일체제 (Peacekeeper ICBM Rail Garrison system)계획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에 따라 美國이 추진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현대화계획은 小型의 單彈頭體制에만 국한될 것임.
- 美國은 전략무기감축협상에 의한 減縮對象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대륙간 탄도미사일들 중에서 多彈頭體制의 감축을 위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였음.

(3) 새로운 戰略司令府 設置

- 美國은 새로운 戰略司令部(Strategic Command)를 창설하여 자신의 핵무기들에 대한 指揮 및 統制體制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음.

(4) 彈導미사일防禦體系 改善

- 부시 미대통령은 다양한 형태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美國을 방어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이용하지 않은 탄도미사일 방어체제(non-nuclear defences)를 제한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특히 현재 탄도미사일 보유국은 15개국에 이르며, 향후 10년 이내에 그 보유국수는 20개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제한된 형태로 防禦體系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음.

다. 對蘇要求事項

- 부시 미대통령은 위의 사항들을 蘇聯과의 사전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선도할 것을 선언한 것이나, 실제로는 蘇聯이 그에 相應措置를 취하지 않을 경우 美國은 戰術核廢棄 등 위 선언의 내용을 반복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 부시대통령이 蘇聯에 요구하고 있는 事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다음과 같음.

(1) 戰術核關聯要求

- 美國은 蘇聯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핵을 이용한 防空體制 등에 裝着하고 있는 모든 戰術核武器들, 그리고 핵폭탄과 핵지뢰를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음.
- 蘇聯이 자신의 艦艇, 攻擊用 潛水艦, 海軍用 航空機 등에 장착한 모든 戰術核武器들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음. 이들 무기의 대부분을 파괴하고, 안전한 중앙지역(safe, central areas)에 남아 있는 핵무기들은 그 안전성을 더

욱 강화하라고 촉구하였음.

(2) 戰略核關聯要求

- 美國이 전략폭격기의 非常待機態勢를 해제한데 상응하여 蘇聯은 자신의 大陸間彈導미사일들을 군기지(garrisons) 안으로 이동배치할 것을 요구하였음.
- 美國이 戰略核武器減縮協商에 따라 減縮對像이 된 핵무기들을 원래 일정보다 앞당겨 제거하기로 한데 상응하여 蘇聯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음.
- 蘇聯도 대륙간탄도미사일 現代化計劃을 한가지의 單彈頭 미사일(one type of single-warhead missile)체계에만 국한할 것을 촉구하였음.
- 美國은 아울러 기존의 多彈頭大陸間彈導미사일들(multiplewarhead ICBMs)을 전면 제거하기 위한 협상을 곧 시작할 것을 蘇聯에 요구하였음.
- 美國이 다양한 형태의 탄도미사일 공격들을 방어해내기 위한 非核 防空體制를 건설하려는데 상응하여 蘇聯도 같은 종류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非核武器를 이용해 건설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음.
- 부시 미대통령은 蘇聯內 군부쿠데타 이후 蘇聯 핵무기

統制體制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蘇聯
政府가 자신의 핵무기에 대한 指揮統制體制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음.

〈附錄〉 2.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의 對應宣言의 內容

가. 戰術核關聯政策

(1) 地上發射 戰術核의 全面 廢棄

-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은 지상발사 전술미사일의 모든 핵포탄 및 핵탄두를 폐기할 것을 제의하였음. 여기에는 對空미사일 및 지뢰의 핵탄두 제거도 포함될 것임.

(2) 海上發射 戰術核의 全面除去

-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은 이와 함께 함정과 잠수함에 장착된 모든 戰術核武器들을 제거할 것임을 천명하였음. 이에 따라 함정, 잠수함, 해군기의 전술핵무기 등이 제거후 일부는 폐기될 것임.

(3) 空中發射 戰術核武器

- 모든 항공기 전술핵무기 제거 후 저장을 위한 대미협상의 개시를 요구하였음.

나. 其他 戰略核關聯政策

(1) 戰略核武器 非常警戒態勢解除

- 重爆擊機는 美國과 마찬가지로 비상경계태세에서 해제되

고 장착 핵무기는 제거, 보관될 것이라고 밝혔음.

- 蘇聯이 보유하고 있는 503기의 대륙간탄도탄(이중 134기는 다탄두 미사일인 MIRV형임)을 작전해제한다고 밝혔음.

(2) 移動式大陸間彈道彈(mobile ICBMs) 現水準 凍結

- 美國형 이동식 대륙간 탄도탄인 MX 미사일계획을 포기하겠다는 부시의 선언에 대한 응답으로서 蘇聯은 자신이 보유한 이동식 대륙간 탄도탄의 숫자를 현수준에서 동결한다고 밝혔음.
- 英國의 國際戰略問題研究所(IISS)에 따르면, 蘇聯은 1990년 현재 225기의 도로이동식 미사일(SS-25)과 60기의 철도이동식 미사일(SS-24)을 보유하고 있음.

(3) 潛水艦發射彈道彈(SLBM)의 一部除去

-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용의, 44개발사장치를 가진 3척의 핵미사일 잠수함을 이미 제거했으며, 48개의 발사장치를 가진 3척의 잠수함도 추가로 제거중이라고 밝혔음.

(4) 攻擊用戰略武器의 大幅的 減縮

- 攻擊用戰略武器에 있어서는 전략무기감축협상에 명시된 것보다도 더 큰 폭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에

따라 7년 후에는 이 협정이 규정한 6천기보다는 적은 5천기의 핵탄두만을 보유하게 될 것임.

(5) 戰略核武器의 中央統制

- 核武器統制에 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전략핵 무기를 단일 통제하에 두고 戰略防衛體制를 單一軍體制로 통합할 것이라고 밝힘.

다. 對美要求事項

(1) 戰術核關聯要求事項

- 蘇聯은 미국측이 유지할 계획으로 있는 공중핵도 소련측의 제안에 상응하게 마찬가지로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2) 戰略核關聯要求

- 戰略武器減縮協定 인준 직후 美國과 蘇聯이 공격용 전략 무기를 약 50% 추가삭감하는 협상의 개시를 제의하였음.

(3) 核實驗關聯要求

-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향후 1년간 일방적으로 핵실험을 중단할 것임을 선언하고 다른 핵강국들도 가장 빠른 시

일내에 전면 核實驗 中斷을 향한 조치에 호응해주기를 희망하였음.

- 美國과 모든 武器用 핵물질 生産中斷에 관한 협정체결을 희망하였음.
- 美國과 핵탄두저장과 수송상의 안전하고도 환경오염이 없는 기술개발을 위한 구체적 대화의 개시를 요구하였음.

(4) 核武器統制關聯要求

- 美國을 포함하여 모든 核強國이 선제핵공격을 양겠다는 합동성명을 발표토록 촉구하였음.

〈附錄〉 3. 美·蘇 軍縮提案 比較表

	미 국	소 련
지상배치전 술핵무기	모든 핵포탄 및 단거리 미사일 탄두 본국철수 후 폐기 (미국은 핵장착대공미사일 및 지뢰가 없음)	모든 핵포탄 및 단거리 미사일 탄두폐기. 대공미사일 지뢰의 핵탄두 제거
해상발사전 술핵무기	모든 함정, 잠수함, 해군 기의 전술핵무기 철수 후 일부 폐기, 일부 저장	함정, 잠수함, 해군기의 전술핵무기 제거 후 일부 폐기, 일부 저장. 모든 해군 전술핵무기 폐기협상 개시
공중발사전 술핵무기	유럽배치공중운반 핵능력 보존	모든 항공기 전술핵무기 제거후 저장 위한 협상개시
중폭격기	모든 전략폭격기(B52)경계태세 즉각 해제	중폭격기 경계태세해제. 핵무기 저장
지상배치전 략미사일	전략무기감축협상에서 폐기 합의된 모든 대륙간탄도탄의 경계태세 즉각해제. 소련측 이동식 대륙간탄도탄의 기지내 격납요구	대륙간탄도탄 503기(이중 134기는 다탄두장착)경계태세 해제. 이동식 대륙간탄도탄 동결. 기지내 저장 현대화중단
해상배치전 략미사일	핵미사일, 잠수함 감축제안 없음	핵미사일 잠수함 3척(미사일 발사장치 48문) 퇴역
전략방어계 획(SDI)	소련의 방공미사일망 배치 제한 요구. 미 전략방위계획 개발 계속	미·소공동의 지상 및 우주 조기경보체제 개발 제안
기타 전략 핵 탄두	전략무기감축협상에 따른 핵탄두감축일정단축. 모든 지상배치 다탄두미사일 폐기협상 요구	소련의 핵탄두수를 전략무기감축협상의수준(6천개) 보다 1천개 더 감축. 모든 전략공격무기 50%감축 위한 협상요구

	미 국	소 련
핵실험	언급없음	일방적인 핵탄두실험 1년간 유예선언. 다른 핵보유국 호응요구
핵무기추가 배치	중폭격기용 단거리 핵미사일 MX 미사일 이동식 미지트맨 (소형 대륙간탄도탄)개발 취소 B2 스텔스기 개발 계속	중폭격기, 단거리미사일 소형 이동식 대륙간탄도탄개발 취소. 철로이동식 전략 미사일 현 대화중단